

‘슬로시티 10년’ 완도 청산도서 오감만족 봄맞이

4월 1일~30일 슬로걷기 축제...공연·체험·전시 등 다채

4월 14일부터 해조류박람회도 열려 불거리·즐길거리 풍성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군 청산도에서 ‘느림은 행복이다’를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17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슬로길(11코스, 42.195km) 걷기, 슬로시티 지정 10주년 기념 퍼포먼스, 슬로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산도 일원에서 한 달간 펼쳐진다.

특히 이번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기간이 겹쳐 이 기간 완도를 방문한다면 차별화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첫 날인 4월 1일에는 안치환&박강성 힐링콘서트와 국악예술원 소리 피 공연, 관광객 500명과 함께하는 오색주먹밥 나눔행사, 타임캡슐 퍼포먼스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

또 한 달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슬로길 사랑 나눔 걷기프로젝트를 비롯한 청산도 슬로룩, 소 달구지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청산도 해상을 운항하던 선박의 나침반이 오작동해 알려지게 된 청산도 범바위 일대의 자기장이 뿜어내는 좋은 기운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기가 흐르는 삼각의자와 오작동하는 대형 나침반, 자석이 붙는 신비로운 돌 체험 등이

색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는 청산도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오는 4월 14일부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완도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와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걷기를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축제, 느림과 여유,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봄 축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용출리 갯돌해변 일출



너덜길



구실잣밤나무 군락지

완도군이 가고싶은 섬으로 유명한 생일도에 ‘명 때리기 좋은 곳’ 3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3곳은 풍광이 아름답고 한적해 명 때리기 좋은 여건을 갖춘 곳으로, 생일섬길 너덜길(돌숲), 용출갯돌밭, 구실잣밤나무 숲이다.

‘명 때리기’란 흑사당하는 현대인의 뇌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는 정신건강 운동이다.

지난 2014년 서울광장에서 명 때리기 대회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려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등

생일도 ‘명 때리기 좋은 곳’ 아시나요

너덜길·용출갯돌밭·구실잣밤나무숲 3곳 선정

외국에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생일섬길 구간 너덜길은 하늘나라에 궁궐을 짓기 위해 가져가던 큰 바위가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는 전설의 자연 돌숲(3만㎡)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너덜길 주변은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동백나무 숲

이 울창하게 분포돼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돌위에 앉아 먼바다를 바라보며 명 때리기 딱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1km 길이의 용출갯돌밭은 출렁이는 파도와 몽돌이 부딪치는 소리가 사람에게 이롭다는 백색사운드를 들으며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자연 파노라마를 망하니 바라보면서 명 때릴 수 있는 해변이다.

구실잣밤나무 숲(9만㎡)은 나무중에서도 탄소흡수율이 가장 좋아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명 때리기 좋은 곳으로 가을철에는 구실잣밤 줄기도 볼수 있다.

완도군은 명때리기 방법을 표기한 안내판과 구실잣밤나무숲에는 벤치도 설치했다. 이승현 완도군 생일면장은 “생일도는 바닷속 해조류와 백운산의 울창한 상록수림에서 뿜어내는 공기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 이상 발생하는 곳으로 바쁘고 지친 도시생활에서 지친 몸을 쉼 수 있는 최적의 섬”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조류박람회 기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

20일부터 사전 특별단속

완도군이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되는 국제해조류 박람회 기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두 달을 견어울렸다.

완도군은 자율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내 112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박람회 기간 사전신고서를 제출 받고

숙박요금표를 일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요금표 게시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했으며, 오는 20일부터 2단계로 박람회에 대비해 사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경찰 신지파출소, 인권사각지대 순찰

양식장·공사현장 근로자 면담

완도경찰서 신지파출소(소장 김평수)는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어패류 양식장 및 공사현장 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염전 노예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지파출소는 특히 “아프리카·동남아 등에서 양식장 등 근로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불안해하는 주민들도 안심시켜주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배 화상병 방제 약제비 긴급지원

2312농가 1억5000만원

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인 배 화상병이 2015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후 매년 발생됨에 따라 화상병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화상병 유입차단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배 화상병에 걸린 과수는 잎 가장자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며, 줄기 선단부가 마르기 시작해 잎·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게 돼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주시는 나무배원 협과 협력하여 배를 재배하고 있는 2312농가(총면적 2139ha)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화상병 예방 약제를 15일까지 농

배 화상병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병에 걸린 제거·매몰해야 하며, 현재까지 이를 방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가 없는 실정으로, 배 화상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억제를 위해서는 배 과수원 주변 40m이내의 모과나무 제거·과수 전정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동계 화합물인 약제를 과수 개화 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 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흑상병 예방을 위해 살포했던 석회유황합제를 화상병 약제 살포 일주일전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살포해야 한다”면서, “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나주시 배기술지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남평읍 ‘클린나주 만들기’ 교통질서 캠페인



나주시 남평읍은 “지난 6일 읍사무소 직원과 남평파출소 직원, 남평자율방범대원 30여명이 남평 5일시장이 열린 남평농협 앞에서 ‘클린(깨끗한)나주 만들기’를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남평읍은 교통캠페인을 남평파출소와의 협조 속에 남평5일장이 열리는 날에 지

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교통캠페인과 더불어 남평읍내 노점상인 단속 또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박종석 남평읍장은 “이번 교통캠페인을 계기로 남평읍 ‘기초질서지킴이’ 운동에 유관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클린 나주만들기 운동’이 지역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4월말 개관 ‘완도작은영화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완도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완도작은영화관’ 민간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완도작은영화관’은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 2층에 2개관, 98석 규모로 이번 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2월 1일 전국 19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선태)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3년간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며, 군에서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협약내용은 영화관의 운영 및 장비의 관리, 완도군민 직원 우선 채용, 수익분배

시 수익배분,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완도작은영화관은 기존 수도권 영화관과 동시에 개봉작을 상영하며, 공사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말 개관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5000원이며, 3D 입체영화는 8000원으로 정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